



분명 안 보였는데... 자동차 사각지대 예방법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튀어나온 차량이나 사람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바로 자동차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차량에 따라서는 사각지대 경고등이 부착돼 있어 사각지대 확인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운전하기 전과 운전 중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자동차 사각지대의 종류와 예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 자동차 사각지대란?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가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인접 차량이나 차로 혹은 장애물을 식별할 수 없는 영역의 각도를 말한다. 자동차 앞, 뒤 사각지대의 경우 앞은 약 4~5m, 뒤는 7.2m까지 존재한다. 사이드미러 시야각은 평균 15도 정도에 그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자동차 사각지대의 종류

자동차의 사각지대는 주로 차체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서 생긴다. 또한, 차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각지대도 넓어지기 때문에 버스나 대형 트럭의 경우 사각지대도 그만큼 늘어난다.



- 전방 사각 - 차체로 인해 가려지는 전방 밑 부분
- 후방 사각 - 차체로 인해 가려지는 후방 밑 부분

- 필러 사각 - A필러로 인해 가려지는 양쪽 전방 측면
- 사이드미러 사각 - 사이드미러로 확인할 수 없는 양쪽 후방 측면

■ 자동차 사각지대 사고 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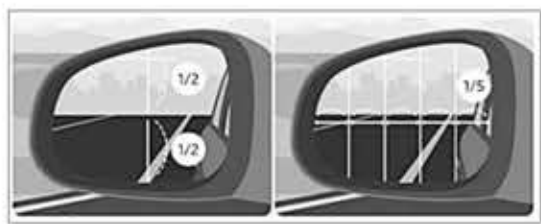
1. 시트 조절

전방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본인의 키와 맞게 시트를 조절하는 것이다. 가족의 경우 한 대의 차를 여럿이서 타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귀찮더라도 이때마다 시트 높이를 꼭 알맞게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 ▶ 시트의 높이: 허리를 곧게 펴고 시트와 최대한 밀착해서 앉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무릎이 약간 구부러지는 정도
- ▶ 핸들과의 거리: 양손을 X자로 포개어 핸들 위에 올렸을 때 편안히 걸칠 정도의 거리로 조절
- ▶ 등받이의 각도: 가급적 9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헤드레스트는 뒤통수까지 충분히 올라오도록 조절

2. 사이드미러 조절



사이드미러만 잘 조절해도 사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세로는 전체 사이드미러의 1/2 지점이 지평선에 닿도록 조절하고, 가로는 전체 사이드미러의 1/5 지점이 차체에 닿도록 조절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일반 거울보다 시야각이 넓은 와이드 미러를 장착하는 것도 사이드미러 사각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운전 시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것보다 실체가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룸미러 조절



차체 후방을 잘 살피기 위해선 룸미러 조절이 필수적이다. 룸미러는 뒤쪽 차선이 모두 보이고, 뒷좌석의 목 받침 끝이 살짝 보이는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룸미러가 너무 아래 방향으로 향하면 사각지대가 늘어나게 된다. 특히 야간 주행이나 빗길 운행 시 뒤 따라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룸미러에 반사돼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다.

4. Schulter 체크 습관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수시로 주변을 살펴보는 운전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수시로 직접 고개를 돌려 확인하는 것을 Schulter 체크라고 하는데, 룸미러와 사이드미러 등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곳은 직접 고개를 돌려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다만 운전이 서툰 사람의 경우, 지나친 Schulter 체크는 오히려 전방 주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운전할 때는 눈에 보이는 영역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사각지대를 유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도 자동차 사각지대를 주의해 보행해야 만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일러스트=m.blog.naver.com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